광주 온 한나라 당권주자들 '비전발표' 실종

'호남구애' 한목소리 '후보비방' 큰목소리

한나라당의 새로운 당 지도부를 뽑는 7·4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이(친이명박)계와 나머지 당내 세력 간의 대결이 격화되면서 전대 경선판이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전대를 앞두고 진행되는 비전발표회가 시간이 흐를수록 첨예한 계파 대결 분위기로 흐르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 간 회동으로 모처럼 조성된 당 화합 분위기마저 깨질 조짐이다.

2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전북·제주권 비전발표회에서도 7명의 전대 후보들은 서로 '호남 구애'를 우선적으로 외쳤지만, 인신 공격 등 계파 간 대결은 여전했다.

유일한 친박계 출신인 유승민 후보는 "정두언 전 최고위원은 지난 4·27 지방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깨끗하게 물러났는데, 이번 전당대회에 전직 지도부 3명이 출마를 했다"라며 "정 전 최고위원처럼 염치가 있어야 한다"라며 홍준표·원희룡·나경원 후보를 겨냥했다.

유 후보는 이어 "홍준표·원희룡 후보가 각각 '공작정치', '협박정치'를 주장했는데 당당히 밝혀야 한다"면서 "선관위는 조사에 들어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 후보를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후보는 "계파싸움이 또 벌어졌다. 한나라당 개혁을 위해 함께 싸워온 원희룡 후보가 지금 계파를 업고 나온 데 대해 가슴이 아프다"라고 계파 간 갈등의 원인으로 원 후보를 지목했다.

남 후보는 이어 "홍 후보는 지난 기간 동안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을 지내는 등 국정운영의 주체인데도 아무런 반성 없이 또다시 국정을 비판하고 후보에 출마했다"라며 "위기의 한나라당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물로 바꿔야 한다"고 홍 후보를 견제했다.

나경원 후보는 "친이-친박(친박근혜)이 너무 구태스럽고 지긋지긋하다"면서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에게 돌려줘서 줄 세우기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공천개혁'을 강조했다.

나 후보는 "분열과 갈등, 비난, 책임 떠넘기기 등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라며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책임지는 한나라당을 당원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후보는 "그동안 호남발전을 위한 수많은 약속을 한 지도부는 계파 싸움을 하느라 호남을 통째로 잃었다"라며 "그런데도 책임지겠다, 반성하겠다고 나간 전임 지도부들이 또다시 지도부가 되겠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며 전임 지도부 출신 후보를 공격했다.

원희룡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메마른 호남 민심을 땀과 눈물로 적실 것"이라며 "지역구까지 포기한 만큼 한 달에 한 번 이상 1박 이상의 일정으로 호남을 찾고, 농가와 마을회관, 어판장에서 잠을 자며 호남민심을 듣고 이를 당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전날 홍 후보의 '공작정치' 발언에 대해 "한나라당은 분열과 갈등을 키우는 리더십으로는 어렵다"고 홍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린 뒤 "다른 후보자들이 저에 대한 공격을 많이 하는 것을 보니 이제 선두권에 진입한 것 같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전날 친이계와 원희룡 후보를 겨냥해 '공작정치'를 주장한 데 이어 이날도 "당 대표가 되려면 특정계파가 (전대를 앞두고) 준동해서는 안 된다"고 또 한번 강조했다.

홍 후보는 "전임 지도부로서 책임 있고, 그에 대한 비판을 모두 듣겠다"라며 "20년 만에 찾아온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후보로 나왔다"고 출마 배경을 설명했다.

박 진 후보는 "호남지역 당원들이 불모지인 호남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놓고도 지역에서 야당 신세를 면치못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지역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없애고 지역의 국책사업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이어 "한나라당이 위기에 처한 것은 계파 갈등을 없애지 못하고 국민과의 소통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라며"당 대표가 되면 중산층에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을 내놓고 계파 갈등 해소로 보수 정체성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 후보들의 비전 발표에 앞서 김수한 당 선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제와 오늘 언론지상에 혼탁선거, 계파선거, 줄세우기 선거 등 좋지 않은 용어들이 나오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후보들은 인신공격적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해달라. 만일 부정선거가 발견되면 명예를 걸고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비전발표회에는 600여 명의 지지자가 각 후보진영으로 나뉘어 북과 꽹과리 등을 치면서 서로 기 싸움을 벌이는 등 전당대회 분위기를 달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외면… 환영… 27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나라당 7·4 전당대회 광주·전남·전북·제주 비전발표회에서 정견 발표를 마친 원희룡 후보가 자리로 돌아오자 권영세 후보가 환한 웃음으로 인사를 나눈 반면 홍준표 후보는 원 후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계파 간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홍 후보와 원 후보는 전날 '공작정치'와 '공천 협박'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공작정치 후보는 사퇴하라"
"분열·갈등 조작 그만하자"
"지역감정 극복 내가 적임자"

김수한 선관위장 "인신공격 자제" 촉구

의장 직권상정 엄격 제한
본회의 '필리버스터' 도입

여야, 국회 선진화 법안 합의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엄격히 제한되고 국회 본회의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정감사는 매년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된다.

한나라당의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세연·이두아 의원, 민주당의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우순·안규백 의원 등 '여야 6인회의'는 이날 오전 회동, 이 같이 합의하고 내년 출범하는 19대 국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한 국회 선진화 관련 법안을 각당 의원총회에 붙여 확정하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가안보 위협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가 2월 임시국회에서 국감계획을 자율적으로 정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 이전에 끝마치도록 했다.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심사도 정기국회 이전 완료하도록 했다.

6인회의는 또 특정 안건에 대한 소수정당의 발언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도입하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5분의1 이상의 요구로 개시되고 5분의3 이상의 요구로 종료된다. 동시에 재적 의원 5분의3 동의로 법안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상임위에는 여야 동수 6인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 쟁점법안을 집중 심의하는 안건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회 질서유지 문제와 관련, 여야는 의장석 및 위원장석 점거 금지의무를 둔다는 데는 의견을 모았지만, 국회 본관 내 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한 세부 규제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선관위, '공작정치'·'공천협박' 의혹 조사 방침

정의화 비대위장 "줄세우기 획책 그룹 특단 조치"

당 대표 경선 계파 줄세우기 논란이 후보 간 감정 싸움으로까지 비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선관위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나라당 7·4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고승덕 대변인은 이날 27일 "아직 선관위에 의혹이 정식 접수되지 않았다"면서도 '직권조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 자료를 수집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또 김수한 당 선관위원장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관위 회의에서 "선거가 혼탁해졌고 상호 비방전과 줄세우기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민이 보기에 아름다울 수 있는 정책경선과 공정경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정의화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줄세우기를 획책하는 그룹이나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그룹 모두 당을 망치는 세력"이라 비토하며 "비대위도 진실을 밝혀 특단의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남경필 "오세훈, 독선 도를 넘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 주장' 거듭 비판

한나라당 7·4 전당대회에 쇄신파를 대표해 출마한 남경필 후보는 27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주장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고 거듭 비판하며 날을 세웠다.

남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오 시장 이야말로 국민을 편 갈라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달성하려는 포퓰리스트 아니냐"며 "갈등을 해결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갈등을 조장하는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자기가 하는 사업만 옳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모두 틀렸다는 것은 독선"이라며 "국민은 오만과 독선에 빠진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 시장은 개인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한나라당까지 위기로 몰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오 시장은 국민과 당을 위해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산월IC 교통광장 접 코너
▶면적:700평,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화순 북면 수련원,요양원,기도원 부지 매매
▶임야:47000평, 단층건물:250평 (5동)
단지내 도로개설됨 소나무, 산약초 재배단지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대 지 : 250평(30×8코너)
가로32m, 세로26m (분할가능)
▶급 매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대 지 : 538평, 680평, 1000평
▶건 물 : 300평, 200평, 200평
▶높 이 : 8, 9, 10.9m
▶호이스트 :유, 유, 유
▶매매가격 : 협의후결정

문의:☎ 016-644-4265, FAX.523-8558

나라공인중개사

펜션텔 매도
전북순창군 복흥면 대방리 펜션텔 2007년준공
• 대 지 : 10980㎡, 임야 : 13937㎡
케모마일 23평형 3개동, 케모마일10평형17개동 관리동1,각각 독채형식 주차장완비 ,수려한경치,수련원,기도원적합 여유대지많음,계곡있음
• 매매가 : 13억(근저당2억9천포함) • 실투자금 : 11억1천

모텔매도
전라남도 여수시 율산면 월산리 • 대지 : 1038㎡,건물1095㎡
• 지하1층지상4층 객실 : 29개 엘리베이터 있음 율촌산단입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숙박업 지정업소
• 매매가 : 10억(근저당3억6천대출승계가능) • 실투자금 : 6억4천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한국아델리움후문부근 코너
• 대 지 : 262㎡ 제2종일반주거지역 원룸,빌라,점포형주택 적합
• 매매가 : 1억5천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월출동 북광주IC 부근 생산녹지
• 답 : 1425㎡ 투자적합 도로있음 영산강변 경치좋음
• 매매가 : 2억2천5백만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일동초교부근
• 대 지 : 210㎡ 제2종일반주거지역 코너 원룸,빌라 적합
• 매매가 : 1억3천만

과수원매매
전라남도 곡성군 목사동면 신전리
• 전,답 : 9150㎡ 계획관리지역 배나무 15~20년생 2000주이상 지대가 높아 과일당도 아주 좋음
• 매매가 : 1억3천5백만

토지매매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평지리
• 공장용지및잡종지 : 8480㎡ 공장부지 : 3192㎡외 잡종지 담양옥과방면2차선 도로접 4차선도로 계획있음
• 매매가 : 6억4천만

대표전화 ☎511-6633
핸드폰 : 010-6522-7731 FAX : 512-4589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근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